

2017년 5월 14일, 구좌읍 한동리 한동리경로당, 이현정 조사.

제보자1: 박근배(남, 1941년생, 구좌읍 한동리)

제보자2: 정진수(남, 1933년생, 구좌읍 한동리)

제보자3: 김윤보(남, 1930년생, 구좌읍 한동리)

- 줄거리: 구좌읍 한동리에 한 하르방이 살았는데, 하루는 밤중에 길을 걸어오다 '시라시라' 소리가 들려 귀신인줄 알고 잔뜩 겁을 먹었다. 집에 와보니 무서워 바지에 똥을 싼 상태였는데, 알고 보니 '시라시라' 소리는 자신이 입은 새 갈중이가 걸음을 걸으며 마찰때문에 나는 것이었다.

[조사자] 아까 누구 하르방마씨?

[제보자1] 또, 김○○도 옛날 아끈내 강 술 먹언에 저 돛다리 허나, 아게 그거 가전 오당 그거 만당 행원으로 행그네. 저 큰 질로 돌아온 것도 그거 옛날 아냐.

[제보자2] 저 김○○이.

[제보자1] 이디. 이디가 잘 알 거라. 이디가 누게 잘 알민 저 큰 가시아방네양
“시라, 시라.” 혼 그거. (웃음)

[조사자] “시라, 시라.”는 뭐마씨? 것도 얘기 해줍서.

[제보자2] “시라, 시라.”

헨 것은 저 감옷 잇잖아 감옷. 거 갈중이라고 그거 새 걸로 입으면은 이제 걸어가민 소리가 나잖아.

[제보자3] ‘삭삭, 삭삭.’

[제보자2] 그걸 말허는 거지. 거난 밤중이니까 귀신이 와서 허는가 해서 겁이 낫다는 말이지.

[조사자] 누가마씨?

[제보자2] 아, 소리가 나니까…….

[제보자1] 게난 오는데, 갈중이 옷을 입어가지고 영 와가니까.

“시라, 시라.”

소리가 나거든. 귀신이 ‘시라,시라.’ 했िका 보덴 하르방은 겁이 나가지고 집이 왕 보니까 똥을 싼더라 이거지. 겁이 나가지고.

- 핵심어 : 시라시라, 감옷, 갈중이, 소리, 밤중, 귀신, 똥, 겁쟁이, 하르방, 할아버지